

이슈브리핑 vol.329 2025년 12월

ISSUE  
BRIEFING

“관광도로 대전환”  
전북이 선도하는 여행이 되는 길

연구책임

연 구 진

김상엽 선임연구위원

김형오 실장



  
Jthink  
전북연구원

## 요약

### 관광도로 대전환, 전북이 선도해야

- 국토교통부가 2025년부터 도입한 ‘관광도로 지정제도’는 도로를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교통·관광 융합을 추진하는 신규사업임. 전북특별자치도는 풍부한 경관과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선도적 모델을 구축할 수 있으며, 스마트 복합쉼터 및 지역 맞춤형 도로 브랜드 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

#### ① 법제 기반의 관광도로 지정제도 대응 강화

- 「도로법」 제48조의2(2023.10 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 중 자연경관·역사·문화자원이 우수한 구간을 관광도로로 지정 가능함. 지정 시 도로표지 부여, 스마트쉼터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전북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후보 노선 발굴과 관리계획 수립에 선제 대응 필요

#### ② 전북형 후보노선 발굴 및 평가전략 수립

- 새만금~고군산군도~변산~곰소 해안권(노을해안로드), 전주~위봉산성(평화의 순례드라이브), 임실~정읍(옥정호 낭만가도) 등 전북의 다양한 노선을 중심으로 경관, 문화, 접근성, 균형발전 요인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군 협력형 관리계획 체계 구축

#### ③ 스마트 복합쉼터와 연계한 관광허브 구축

- 관광도로 지정을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와 연계하여 AR/VR 안내, 특산품 판매, 로컬푸드 카페, 친환경 교통시설 등을 갖춘 복합형 관광허브로 발전시켜야 함. 태양광·ESS·전기차 충전 등 에너지 자립형 모델을 도입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 참여형 수익모델을 병행

#### ④ 브랜드화 및 홍보·데이터 기반 운영체계 구축

- ‘전북 감성로드(Jeonbuk Scenic Drive)’ 등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고, 전용 도로표지와 SNS 챌린지, 방송 연계 홍보를 통해 대외 인지도를 제고해야 함. 관광도로 정보체계와 연동하여 교통량·관광소비·환경지표 등을 실시간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마련

#### ⑤ 균형발전과 주민참여형 운영모델 정착

- 낙후지역·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관광도로를 지정해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이 여행상품, 체험프로그램, 환경정비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 기반 운영체계를 구축

키워드 관광도로, 전북 감성로드, 스마트 복합쉼터, 균형발전, 데이터 기반 운영

## 1

## 관광도로의 개념과 정책동향

- 국토교통부는 도로 및 도로 주변 관광자원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 · 관리하여 도로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20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관광도로 지정사업은 기존 도로를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관광자원의 측으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임. 국토교통부는 관광도로로 지정되면 도로 자체의 브랜드화와 정보체계 구축, 스마트복합쉼터 공모사업에서의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밝힘. 전북특별자치도가 이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지역 관광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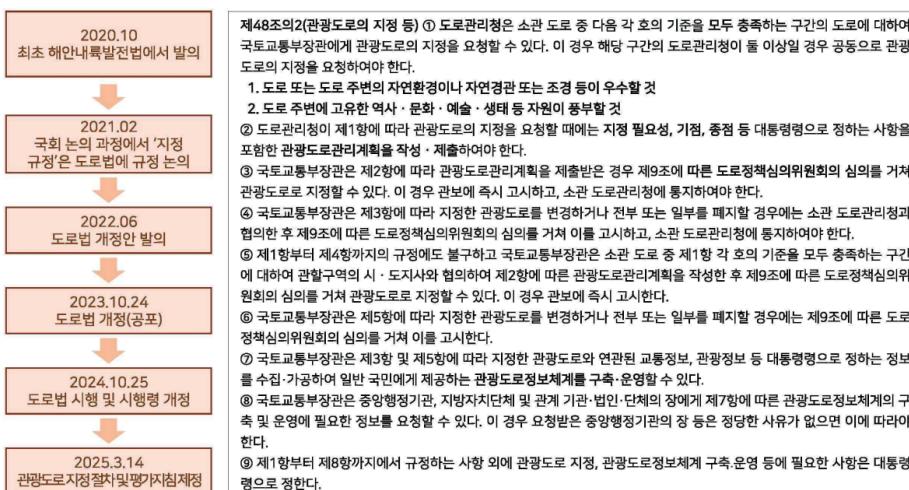
## (1) 관광도로의 정의와 법적 근거

- 그 동안 경관이 우수한 도로를 ‘경관도로’로 지정하여 관광 활성화 유도와 도로 정비를 추진해온 사례가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중장적인 도로관리와 체계적인 지역 관광산업 연계 발전에 한계가 발생함

\* 경관도로 52선('11), 경관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11), 경관쉼터 · 구조물 조성('16)

- 이러한 배경에서 실질적인 관광도로 지정을 위하여 2020년 해안내륙발전법에서 최초 발의되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23년 10월 도로법 제48조 2항의 개정으로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 중 자연환경이나 경관, 주변의 역사·문화·예술·생태 자원이 우수한 구간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됨. 관광도로 관리계획에서는 노선명, 기·종점 및 주요통과지자연환경 현황, 인접 관광자원, 관리·운영 계획, 편의시설 설치 계획 등을 포함해야함.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를 지정하고 관보에 즉시 고시하며, 필요시 변경·폐지할 수 있음

〈그림 1〉 관광도로 제도의 배경



출처 : 국토교통부 관광도로 도로관리청 설명회 자료(2025)

### (2) 사업 목적과 추진 배경

- 관광도로 지정의 목적은 우수한 관광 여건을 갖춘 도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임. 국토교통부는 2025년 본격 추진을 선언하면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관광 육성을 도모하는 교통·관광 융합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전용 도로표지 설치와 관광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내외 여행객에게 매력적인 도로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관광수요가 집중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특히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복합쉼터 지원사업과 연계해 휴식·문화공간 조성을 촉진한다는 계획임

### (3) 관광도로 지정 절차와 평가지침

-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는 국토교통부 훈령 제1851호(2025. 3)에 따름. 관광도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서 접수 → 서면평가 →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 → 위원회 심의 및 고시 순으로 진행되었음. 해당 도로관리청은 관광도로관리계획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는 통해 진행되며 도로 경관과 주변 관광자원, 접근성 및 관리계획 실행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들은 사계절 경관사진과 설명 자료를 요구함. 평가위원회는 관광·경관·역사·문화·도로·교통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가점은 스마트 복합쉼터나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낙후지역 포함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적용됨

〈그림 2〉 관광도로 지정절차



출처 : 국토교통부 관광도로 도로관리청 설명회 자료(2025)

#### (4) 지정 이후 관리와 인센티브

○ 관광도로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는 관광도로 정보체계를 구축해 명칭, 위치, 교통량, 사고 통계, 주변 관광지와 같은 정보를 통합 제공할 계획임. 장관은 필요 시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체계가 구축되면 교통정보와 관광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여행 편의를 높이고, 도로관리청은 이를 활용해 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 관리계획 미이행에 대한 벌칙은 없으나 필요시 도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이 변경 또는 폐지될 수 있음

○ 인센티브 측면에서, 관광도로에는 전용 도로표지가 설치되어 방문객에게 특별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음. 또한 스마트 복합쉼터 지원사업에서 관광도로 대상 노선에는 가점이 부여되어 휴식 기능과 문화 공간을 강화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는 이외에도 도로와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를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검토 중에 있음

〈그림 3〉 대한민국 제1호 관광도로 표지디자인(안)



## 2 해외사례와 공모사업 결과

### (1) 해외 관광도로 사례

- 미국 국가경관도로는 연방도로관리청이 경관적,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고고학적, 여가적 가치 등 6가지 선정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국가경관도로로, 두 가지 이상 충족하면 전국민 경관도로로 지정·운영함. 육상교통 체계효율화법에 의해 주정부가 신청하고 지정이 완료되면 각 주정부에서 정비 및 관리를 담당함

〈그림 4〉 미국 국가경관도로 프로그램  
(National Scenic Byway Program, NSBP)



(운용 사례)



(표지판)

- 독일 관광가도는 독일관광청이 와인가도를 시작으로 전국 150여 개의 문화관광가도를 주체 및 테마별로 연결하여 광역 관광가도를 형성함. 대표 테마로는 로맨틱, 고성, 메르헨, 알프스, 판타스틱, 고테 가도 등이 있으며, 각 관광가도는 지자체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관광가도협회의 규약에 근거해 운영됨. 이러한 가도들은 중세 고성, 와인 산지, 동화 배경지, 알프스 산악 경관 등 독일의 역사와 자연,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루트임

○ 일본 풍경가도는 지방협의회가 등록 조건에 따라 등록하고 파트너쉽이 조직되어 계획적인 활동을 실시함. 등록 조건으로는 활동 주체가 조직되어 있어야 하며 중심 도로가 존재해야 함. 경관법, 마을만들기법 등의 전략회의 지침을 근거로 운영되며, 지방협의회는 활동을 지원하고 도로 및 주변 지역에서 경관 개선, 안내 시설 정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 현재 전국에 130여 개 풍경가도가 등록되어 지방협의회가 관리하는 체계임

〈그림 5〉 일본 풍경가도 사례

경관자원	자연자원	역사자원
가로, 구조물, 랜드마크, 야경, 수변, 항구, 연도자원 등	세계유산, 자연공원, 산림, 산악, 해안, 호수, 바다, 동식물, 계곡 등	고도, 유적, 사적, 옛거리, 역사적 건축물, 고성, 전통보존지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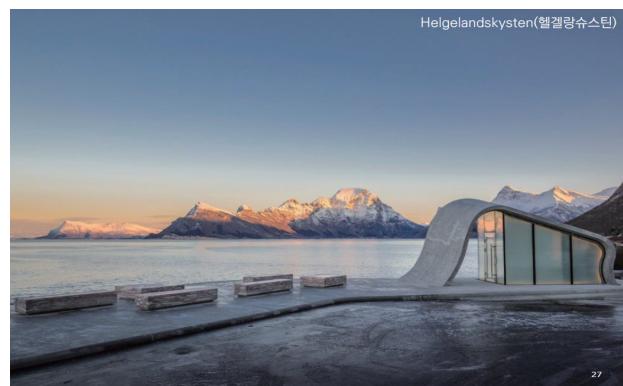


○ 노르웨이 국립관광도로는 교통부 산하 도로청이 경관적 매력이 있는 산과 해안 인근 도로를 공모하여 지정하며 지정기준으로는 주요 교통기능을 하지 않는 자동차 길이어야 하고 각 노선이 고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도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 정부는 조망시설,

관광콘텐츠, 숙박, 주차장, 전시관, 편의시설, 폐리정박장, 전망대 등 관광 편의시설 설치에 집중하며 국가교통계획과 관광전략에 따라 추진되고 국립관광도로 관리는 도로청이 직접 담당함

〈그림 6〉 노르웨이 국립관광도로  
(National Tourist Routes in Norway)

(조망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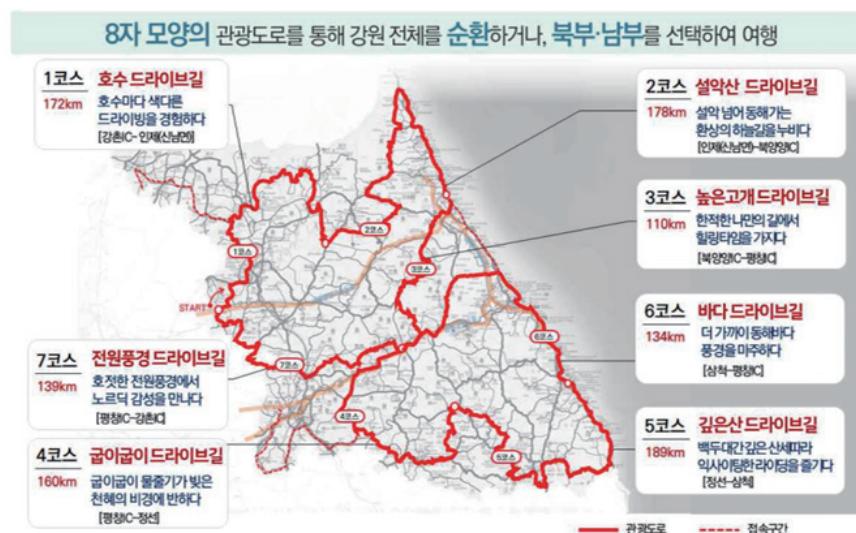


(휴게시설)

### (2) 네이처로드 시범사업과 국내사례

- 국내 관광도로 사업의 전단계로 네이처로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강원도는 마스터플랜과 실행사업 용역을 통해 경관이 아름다운 도로를 발굴 및 정비 중이고

〈그림 7〉 강원관광도로  
(Gangwon NATURE ROAD)



- 강원과 전남은 공모사업을 통해 스마트 복합쉼터 설치와 지역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여행 상품 개발로 지역 내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성공함. 이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모델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관광도로 지정 및 운영 시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임
- 국토교통부는 과거 2011년 한국의 경관도로 52선을 선정하여 10km 이상 구간의 아름다운 도로를 소개한 바 있음. 이 목록에는 전북의 남원, 무주, 임실, 진안 지역이 포함되어 전북의 다양한 도로가 관광자원으로 인정받음. 경관도로 52선은 자연경관, 문화유산, 드라이브 코스 등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였음. 관광도로 제도는 이러한 경관도로를 넘어 법적 지정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로 관광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남도는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함. 이들 시범사업은 관광도로 제도 도입 전 도로경관 개선과 콘텐츠 개발 방안을 탐색한 사례로 본격 지정 시 참고 자료가 되며 미래 관광도로 사업의 기반을 마련함

### (3) 최근 공모 결과와 시사점

- 국토교통부는 도로 주변의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6개의 관광도로를 신규 지정 하였음. 이번에 선정된 노선은 구좌 숨비해안로(제주), 함양 지리산 풍경길(경남),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전북), 제천 청풍경길(충북), 백리섬섬길(전남), 별 구름길(강원) 등으로, 각 노선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이 조화된 고유한 경관축이라는 특징을 가짐. 특히 이번 지정은 2024년 10월 관광도로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며, 향후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그림 8〉 관광도로 선정지 위치도



- 대한민국 제1호 관광도로로 선정된 전북 무주의 경우 덕유산, 구천동33경, 태권도원, 반디랜드 등 지역대표 관광벨트 구축으로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그림 9〉 대한민국 관광도로로 선정된 무주 자연품길



# 3

## 전북에 주는 기회와 효과

### (1) 전북의 관광자원 및 후보노선(안)

-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양한 경관·문화 자원을 가진 도로를 보유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후보노선을 다음과 같이 구상함

#### ○ 노을해안 드라이브로드

- 구간 : 군산 새만금 – 고군산군도(신시도) – 부안 변산 해수욕장 – 곰소염전 – 구시포 해변
- 서해안 낙조의 황홀한 풍경을 달리는 해안도로. 새만금의 광활함과 변산의 해양 정취, 곰소염전의 산업유산을 잇는 전북 서해안권 대표 해양관광 루트

#### ○ 평화의 순례드라이브

- 구간 : 전주 풍남문 – 치명자산 성지 – 화심재 – 완주 송광사 – 위봉산성
- 역사와 신앙, 정신문화가 어우러진 평화의 순례길. 도심에서 산사로 이어지는 ‘마음의 여행길’로, 종교관광 · 명상여행에 적합

#### ○ 옥정호 낭만가도

- 구간 : 임실 옥정호 봉어섬 – 운암면 수변도로 – 정읍 칠보면 – 구절초 지방정원
- 호수의 잔잔함과 계절의 색이 조화를 이루는 호반 관광 도로. 정읍 내장산권과 연계된 감성 드라이브 코스이자 ‘가을 낭만길’로 특화

## “관광도로 대전환” 전북이 선도하는 여행이 되는 길

### ○ 용담호 웰니스로드

- 구간 : 진안 용담물문화관-부귀 편백숲 산림욕장 - 홍삼스파 – 마이산
- 물, 숲, 인삼, 산이 어우러진 전북형 치유 드라이브로드. 산림치유와 웰니스, 홍삼테라피를 결합한 건강·휴양형 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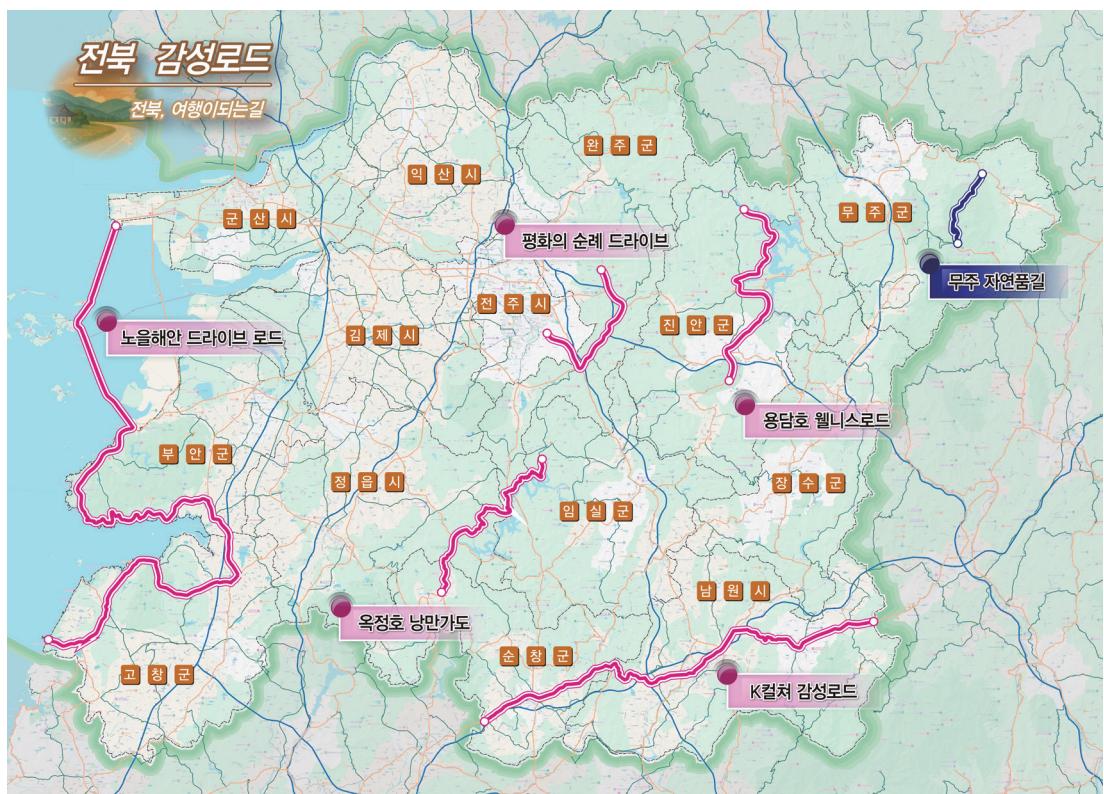
### ○ K-컬처 감성로드

- 구간 : 남원 국악의 성지 – 광한루원 – 순창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 전통음악(국악)·사랑(춘향전)·맛(고추장)을 테마로 한 문화체험형 드라이브로드. 한류의 원형이 깃든 전통문화와 미식이 공존하는 도로

- 이외에도 진안 메타세쿼이아길, 김제 지평선도로, 장수 논개생가지 일대 등 산·강·호수·농촌을 아우르는 도로들이 많아 다양한 테마형 관광도로 구성이 가능함. 평가 기준을 고려할 때, 연장 20~100km 이내 구간을 중심으로 사계절 경관과 인접 관광자원을 갖춘 노선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10〉 전북 감성로드(예시)\_전북, 여행이 되는 길



## (2) 관광도로 지정으로 기대되는 효과

- 관광도로로 지정되면 관광객 증가와 지역 소득 증대가 기대됨. 도로 자체가 관광자원 역할을 하여 교통량과 방문객이 증가하고, 숙박·음식·체험 업종의 매출이 상승할 수 있음. 특히 주변 농어촌 지역의 특산물과 로컬푸드 판매가 활성화되어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또한, 지역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여 전북의 관광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음. 전용 도로표지와 통합 브랜드 도입으로 SNS와 미디어에 지속 노출되며 잠재 관광객의 관심을 끌기 용이함. 이와 함께 균형발전 및 인구 소멸 대응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낙후지역 및 인구소멸지역 중심 노선 선정 시 사업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 회복이 가능함. 환경과 문화 자원의 보호와 활용도 가능해져,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지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3) 스마트 복합쉼터 설치에 따른 파급효과

- 전북의 관광도로와 스마트 복합쉼터를 연계하는 계획은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진흥에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도로 자체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관광도로 지정 시 여행객 유치와 체류 시간 연장에 도움을 주며, 스마트 복합쉼터는 이와 연계하여 휴식과 체험이 결합된 관광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그림 11〉 스마트복합쉼터 콘셉트



- 이와 같은 복합쉼터는 디지털 관광 안내와 교통정보 서비스, QR코드 기반 AR/VR 콘텐츠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다양한 체험과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북 특산물 판매장과 문화 전시 공간으로 지역 농가와 협동조합의 수익 창출도 지원함. 또한, 친환경 교통 인프라와 자연 친화적 디자인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관광 인프라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4) 균형발전과 주민참여

- 관광도로 사업은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주민들이 여행 상품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환경정화 활동 등에 직접 참여하면 지역의 정체성과 소속감이 강화되고, 관광에 대한 지역社会의 이해와 지원도 높아짐. 이러한 참여는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특히 전북에서는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관광도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로 정체와 교통 안전 문제 예방이 필수적임. 교통량 분산 대책과 안전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며, 사계절 방문객을 고려한 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또한, 지자체는 관리·운영 비용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광객 급증에 따른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함. 이러한 종합적 관리 체계가 마련될 때, 관광도로 사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 전략

### (1) 후보노선 발굴과 우선순위 결정

- 전북은 자연경관, 역사·문화자원, 관광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 관광도로 노선을 선정해야 함. 선정 기준은 경관·문화 자원의 우수성(산, 강, 호수, 바다 등 다양한 자연환경과 전통 마을, 문화유산, 축제 포함), 연장과 접근성(10~200km 길이 확보 및 인접 관광자원 10~15분 내 차량 접근 가능), 낙후지역 포함 여부(인구소멸지역과 낙후지역 포함 시 가점 부여로 균형발전 효과 증대), 그리고 스마트 복합쉼터 설치 가능성(쉼터 부지, 전력·통신 인프라, 관광자원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함. 예를 들어 변산반도 해안도로는 풍부한 해양 경관과 국립공원, 채석강 등의 문화자원을 포함해 우수한 사례임
- 전북도는 주무부서 주관으로 관광·문화·환경·농업 부서와 함께 관광도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후보 노선을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또한, 민간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과 지역 적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관광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짐

### (2) 평가지표와 가점요소활용 전략

- 관광도로관리계획은 서면평가에서 50점 만점 중 30점 이상을 획득해야 현장평가로 진행 가능하므로, 전북은 완성도 높은 계획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함. 이를 위해 먼저 노선 분석과 지정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서술해야 함. 구체적으로 기점과 종점, 노선 길이, 주요 통과지, 주변 관광자원과 자연환경의 우수성을 상세히 기술해 노선의 관광적 가치를 강조해야 함

○ 관광자원 접근성과 연계 전략도 중요하며, 관광자원과 인접거리, 안내 인프라, 도보·자전거·버스·차량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의 편의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함. 편의시설 설치 계획에서는 화장실, 주차장, 전망대, 휴게공간 등 필수 편의시설과 함께 스마트 기술 도입 계획도 함께 포함해야 함. 또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으로 로컬푸드 판매, 전통시장 및 숙박시설 연계,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하며, 홍보와 브랜드 전략에서는 관광도로 명칭, 로고, 스토리텔링 개발 및 국내외 홍보와 SNS·공동마케팅 활용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함. 재원 마련 및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국비, 도비, 민자 등 재원 확보와 관리·운영 비용 추정, 환경 보호 및 유지관리 계획까지 세밀히 수립해야 함

○ 계획에는 사계절 경관사진과 영상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위원들이 다양한 계절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관리청 간 협의를 신청 전부터 시작해 관리·운영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 전북도는 총괄 책임을 맡고 시군은 참여 기관으로 적극 준비하는 협력 체계가 필수적임

### (3)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 연계전략

- 전북은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관광도로와 연계된 특화 모델을 전략적으로 제시해야 함. 우선, 테마별 디자인을 적용하여 해안도로에는 바다와 재생에너지를 주제로 한 전망대와 체험관을, 산악도로에는 숲 속 산책로와 캠핑 시설을 조성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함. 또한, IoT 기반 시설 관리, 무인판매 시스템, AR·VR 체험, 실시간 교통 및 관광 정보 서비스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여행객 편의성과 재미를 극대화해야 함

○ 에너지 자립형 쉼터 구축에도 주력해 태양광과 풍력발전,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설치하고, 전기차·수소차·자전거 충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교통 활성화에 기여함. 지역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로컬푸드 식당, 전통공예체험, 지역축제 홍보 프로그램도 운영해 지역 특색을 살리고 관광의 질을 높여야 함. 아울러, 스마트 복합쉼터 운영은 민간위탁이나 공공·민간 협력(PPP) 방식으로 추진해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쉼터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음

#### (4) 홍보 및 브랜딩 및 지속가능 운영

○ 관광도로 지정 이후 전북은 강력한 홍보와 브랜드 전략을 추진해야 함. 전북 관광도로 브랜드를 ‘길 위의 박물관’ 또는 ‘오감만족 로드트립’ 등 매력적인 이름으로 개발하고, 지역 작가와 협력해 전용 도로표지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음. 통합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해 관광도로

정보, 스마트 복합쉼터, 지역 관광지를 한 번에 검색·예약하게 하고, SNS 챌린지나 도장 찍기 이벤트 등으로 여행객 참여를 유도함. 지역 방송과 협력해 관광도로 여행 프로그램을 제작해 홍보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효과적임

○ 전북도는 중앙정부에 스마트 복합쉼터 운영비 지원, 관광도로 유지관리 기금 조성, 평가 기준에 지역 특수성 반영, 낙후지역 지원 강화 등을 건의해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 ‘전북형 관광도로-관광콘텐츠 패키지’를 개발해 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음. 지속 가능한 운영과 체계적 모니터링을 위해 국토교통부 정보체계와 연동하여 방문객 수, 교통량, 관광소비 등을 실시간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개선 및 환경·문화 보호, 지역사회 참여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 협의체 운영과 수익 공유 모델을 마련해야 함. 매년 정책 평가와 수정 과정을 통해 노선 변경이나 추가 지정도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음

〈그림 12〉 전북자치도 대응전략

### 관광도로 대전환, 전북 대응전략





## 맺음말

- 관광도로 제도는 교통과 관광을 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 도로를 중심으로 자연, 문화, 역사 자원을 엮어 체험형 관광 루트를 만들고, 스마트 복합쉼터 등 첨단 인프라와 결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정책임. 법적 근거와 평가 지침이 마련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었고, 가점 제도와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시행 초기 안정성도 확보됨
- 관광도로 대전환은 단순한 인프라 사업을 넘어 길 위에서 만나는 문화와 삶의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임. 전북은 이 미래를 그리며 자연과 역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제시해야 함. 국토교통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강점을 살린 전략으로 “관광도로 대전환: 전북이 선도하는 도로관광 전략”을 현실화하기를 기대함
- 전북특별자치도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도로 선도 지자체가 될 잠재력을 갖췄음. 새만금 방조제, 변산반도 해안도로, 지리산 둘레길 등 매력적인 후보노선을 적극 발굴하고, 스마트 복합쉼터와 연계한 특화 모델을 개발해야 함. 관리계획의 완성도와 평가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하고 주민, 민간단체, 정부가 함께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면 전북형 관광도로는 국내외 여행객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임

**참고자료**

1. 강원관광재단(2025), 강원형 관광도로 강원 네이처로드, 2024년 체류형 관광 마케팅 기반 2025년 브랜드 인지도 확산 시동
2. 국토교통부(2020),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해안내륙발전법 제정) – 관광도로 법제화 초안 포함
3. 국토교통부(2025), '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절차 본격 추진 (보도자료)
4. 국토교통부(2025), 관광도로 도로관리청 설명회 자료 – 관광도로 지정제도 설명회 발표자료
5. 국토교통부(2025), 관광도로 지정 절차 및 평가 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851호 제정)
6. 국토교통부(2025), 스마트복합쉼터, 일반 국도 5곳에 새롭게 조성 (보도자료)
7. 국토교통부(2025), 전국의 여섯 빛깔 여행로를 소개합니다 (보도자료)
8. 국토해양부(2011), 한국의 경관도로 52선 (전국 아름다운 도로 52선 선정 결과)
9. 미국 연방고속도로청(FHWA)(1995), 국가경관도로 프로그램 (National Scenic Byways Program) 지정 기준
10. 독일관광청(2023), 독일 관광가도 (Deutschland Ferienstraßen)
11. 일본 국토교통성(2023), 풍경가도 (일본 Scenic Byway 제도)
12. 노르웨이 도로청(2012), 노르웨이 국립관광도로 프로그램 – 18개 국립 관광경관도로 선정·운영 사례.

# iSSUE BRIEFING

vol.329



발행인\_전북연구원장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http://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5

9 772508688004  
ISSN 2508-688X